

오전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
※ 예배부름	..... 인도자
※ 예배기원	..... 인도자
※ 경배찬송	..... 21장(다 찬양하여라).....
※ 교독문	..... 27(시편 51편)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송	.....305장(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배기도	..... 1부 김선주집사 2부 박홍만장로
응답송	..... 찬양대
이달의찬양	..... “죄인들을 위하여” .....
협력기도 / 한 마음기도 / 중보기도	..... 다 같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남의 삶을 살게 하소서.</li> <li>*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li> <li>*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치우하심과 축복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li> </ul>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 마태복음 4:17 .....
찬양	.....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회개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
기도	..... 설교자
◆응답하는 예배◆	
찬송	..... 255장(너희 죄 흉악하나) .....
봉헌	..... ( 9 구역) .....
봉헌기도	.....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 말은이
※ 찬송	.....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
※ 축도	..... 담임목사
※ 축복송	..... 찬양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 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		새벽기도회(월-금)	
인도 / 담임목사	찬양 / 다함께	인도 / 말은이	찬양 / 다함께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기도 / 말은이	본문 / 마태복음3:11	기도 / 말은이	본문 /	예레미야서 강해	
말씀 / 최세열목사	*Acts29 -제2과정 사역	말씀 / 이경훈전도사	말씀 /	8월 9일까지 쉽니다.	<b>금요기도회</b>
	3.생명이 살아숨쉬는 사역			각자 기도하시기	
축도 / 최세열목사	축도 / 최세열목사	주시기도문 / 다같이		바랍니다.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민영화 함경숙 김한순	다음주	1부	안복선집사
		김금자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기도	2부	강항구장로
	헌금위원	8월 김대봉 허웅 최승연 주종임	다음주	1부	말은이
		9월 최경선 이종열 김연학 김선영	성경봉독	2부	신혜영권사
식당봉사	금주 마르다B	다음주 루디아A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이문순권사
헌신찬양	금주 9 구역	다음주			10구역

## 회개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 마태복음 4:17

창세기가 알려주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창조로부터 인간의 타락과 심판, 인간의 불행한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참 인간의 삶을 잃어버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곧 성경의 역사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길을 제시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은 곧 독생자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구원을 믿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회개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에스겔33:11절 말씀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임과 동시에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길은 회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누가복음12:13-21절에서 회개치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인간의 탐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그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참 성실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지 못한 것은 오늘 밤이었습니다. 즉 곧 다가올 마감의 시간을 알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무엇을 위한 준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시14:1).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혼을 살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현재의 모습에 대하여 한결같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롬5:19, 롬 5:8, 눅5:32, 딤펢전1:15).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곧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곧 창조목적과는 전혀 다른 피조물로 살아왔습니다.

타락한 죄인들에게는 3가지 특성이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합니다.

둘째,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생각합니다.

셋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소망이 끊어졌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의 혁명이 회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1. 회개란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개라는 의미를 죄를 찾아내 죄를 해결하는 반성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고후 5:17). 회개는 소극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 곧 반성과 별을 받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회개와 죄용서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죄를 씻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회개란 영혼의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좋은 길, 행복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던 길에서 즉시, 그리고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회개란 목적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인생의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목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갈2:20, 롬14:8, 고전10:31).

이처럼 회개란 영혼의 총체적 혁명입니다. 예수를 알고, 죄의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자로, 기쁨으로, 기도함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모든 영역에서 영혼의 통치권을 주님께게로 넘긴 사람입니다.

3. 회개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까지 계속된 열심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같은 문제로 신음하고 부르짖습니다. 이는 곧 죄의 중독성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반복이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한가지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절제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은 우리를 파괴와 타락의 종이 되어 그것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예수님도 요한17:45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까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를 거듭 짓는 죄의 중독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잘못되게 하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는 단지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 삶을 시작할 때 가능합니다. 참된 믿음의 삶은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요3:3)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마18:3)고 하십니다.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어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냐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예배 후에 제직회로 모입니다.
2. 청소년부 수련회를 은혜 중에 다녀왔습니다. 수고해 주신 교사들과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 해든솔 선교활동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10일(토) 오전 8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4. 청년회 수련회가 8월 15일에 있습니다.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청년회장 :심재룡, 부장:김기수집사)
5. 전도사역팀의 일일수련회가 9일(금)에 있습니다.

**회개란 꽃병 속에 넣은 주먹과 같다**

주색으로 집안을 망친 한 사나이가 극적으로 회개, 빛나는 생애를 보낸 산 역사가 있습니다. 세계적 문호 빅토르 위고가 주인공입니다. 어느 날 외동딸 레오포르딘의 시체가 세느강에서 발견되었는데, 옆에는 아버지의 심한 외도와 과음, 거기에 짓눌려 사는 비참한 엄마 때문에 살의 욕을 잃었다는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위고는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외치며 반성,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되어 헌신적으로 일해 프랑스 교육부장관까지 지내고 프랑스 국기인 ‘3색기’의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며 그의 문학도 더욱 깊어갔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는 자신과 세계를 바꾸어 놓습니다.

부흥사 무디는 “회개란 꽃병 속에 넣은 주먹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아가리가 좁은 꽃병 안에서 주먹을 움켜쥐면 손을 뺄 수 없습니다. 돈명에 지위 권력 구습과 옛 생활 등을 고집하면 회개는 어렵습니다. 주먹손을 비운 ‘열린 손’이 회개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2-24)

**진젠돌프의 회심**

어느 날 독일의 한 봉건 영주가 우연히 주님의 십자가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넌 나를 위해 무엇을 주겠느냐?" 그가 하루 종일 저녁 늦게까지 그 그림을 보는데, 점차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신비한 기운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강한 다짐을 합니다.

그 다음날 진젠돌프라는 이름을 가진 이 봉건 영주는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고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짓고, 독일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후 주님만 바라보는 이 아름다운 신앙운동은 모라비안 운동으로 일컬어졌고, 그 모라비안 교인들의 신앙으로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로 말미암아 감리교라는 거대한 신앙공동체가 생겨납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회심과 결단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향기로운 예물과 봉사**

- 십 일 조 : 김연학 김장숙 안진영 이문순 심재룡 홍강의 김성희 김근중 주종임 서영자 엄정현 천사라 박정일 박지영 방옥남 박기환 한옥자 김춘자 이종봉 이춘호 강항구 류종란 강동균 김현아 김혜경 강은순 김대봉 김태라 김애자 정숙자
- 감사헌금 : 박광섭 김병국 김기희 이문순 신공님 김애자 무명2 (생일) 이강문 박세희 (심방) 최현진 박지혜 (맥추)김성희
- 건축헌금 : 강항구 류종란 김혜경 이종봉 이춘호 이현화 이윤화 박기환 한옥자 김근중 주종임 방옥남 심문자 이종춘 홍강의 김성희 베드로
- 비전씨앗 : 배영인 박주환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전도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3-31 2013.8.4.

**8 월의 행사**

1. 평신도 참여예배 - 8월 18일 - 바나바회
2. 해든솔 선교활동 - 8월 10일(토) 오전8시30분
3. 청년회수련회 - 8월 15일
4. 교육부서 여름행사보고예배 - 8월18일 찬양예배
5. 작정밤기도회 - 8월 26일-30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에게 보내 주소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저희를 부르신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에게 주시어  
 주님의 마음 깊은 곳을 헤아리게 하소서.  
 저희 맘속을 강하게 하시어  
 저희에게 주신 희망과 약속의 분깃을 더욱 굳게 붙잡게 하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데서 만유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게 하소서.  
 성령을 통하여 힘을 주소서.  
 저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스런 몸과 같은 모양이 되게 하소서.  
 주님,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길을 배워주소서.  
 영혼에 붙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인생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중에서)

**담당목사 : 최세일(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전도사:강은순, 이경훈 지휘:김영란 반주:안진영**